

원력의 20돌...경주 불교 문화 지키며 대중화



지난 5월 6일 열린 신라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축하떡 절단식을 하고 있다.

창립 20주년 맞은 경주 신라문화원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신라불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과 같은 곳이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마다 경주 남산 불적답사를 본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고, 충담 스님을 기리는 충담재를 비롯해 문화재 지키기, 신라달빛기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경주 신라 문화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전개해 해온 신라문화원이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5월 6일에는 이사장 해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을 초청해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불교신문 경주지사, 신단원 찾집을 모태로 1993년 3월 18일 개원한 신라문화원은 지난 20년 간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NGO로 자리매김했다.

문화재 보존과 일자리를 동시에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원인만큼 신라문화원의 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93년 경주 남산 지도를 제작·배포해 남산의 불교 문화재들의 현황을 알렸으며, 어린이문화학교, 문화재해설사 양성 교육, 1가구 1문화재지킴이 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주남산 지도는 현재 5쇄 5만부가 대중에게 제공됐으며, 2000년부터 시작한 어린이문화학교는 접수가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한 문화원은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1994년 시작한 경주 달빛신라역사기행은

2003년 경상북도 '머무는 관광'으로 선정돼 연인원 4만여 명이 다녀가는 경주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 수학여행지였던 경주의 특성을 살려 50~7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도 신라문화원의 대표 관광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지난해에만 31회, 2천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옛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이와 함께 신라문화원은 문화재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현재 문화원은 신라문화재협장, 경주고택, 신라문화원문화재보존활용센터 등 3곳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회 사회적기업의 날에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주, 포항을 비롯한 경상북도 동남부 10개 지역 문화재의 경미한 보수 및 상시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돌봄사업단과 60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창출기관인 경주시니어클럽 등 5개 기관에 전체 직원 65명과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 7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진병길 원장은 "경주관광이 1970~80년대 사진, 1990년대 가이드 위주였다면 최근 추세는 점점 체험위주로 변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경주의 문화재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국통일의 토대가 된 정신문화의 소재를 찾아 경주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싶다"며 "이를 통해 경주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테마로 경주를 거듭해 찾을 수 있는 단골 관광지로 만들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불교 대중화에도 앞장

개원 당시 '불교 대중화'와 '신라문화 알리기'를 기치로 내걸었던 신라문화원은 지역 불교 대중화 사업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신라 고승 충담 스님을 기리는 차문화 축제인 '충담제'를 올해로 24회째 봉행하고 있으며, '년 2회 스님 초청 법회를 열고 있다. 올해에는 해국 스님과 종광 스님을 초청했다.

또한 불교문화대학을 매년 열어 부처님의

불교 대중화, 신라문화 이해

기치 걸고 1993년 3월 개원

남산 지도 제작해 성보 파악

달빛 기행 등 관광 상품 개발

문화재 보존, 사회적 기업 등

외연 확장... 문화 NGO 자리매김

참된 진리와 교리, 사찰예절 등 불교 대중화에 필요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남산 불적 답사' 승려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80여 명의 스님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기도 했다.

진 원장은 "충담제의 경우 불교의 육법 공양, 헌공 차례부터 문화재·다도 체험, 문화 공연, 지역 다기 전시·판매 등을 진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불자와 스님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지역 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고 작은 인연이 20년 버팀목

신라문화원이 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진 원장의 원력이 컸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할 때부터 경주 지역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열력을 세운 그는 1993년 개원부터 지금까지 신라문화원을 이끌고 있다. 크고 작은 부침도 있었지만 오로지 원력 하나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국가 기관 문화원이 아니다 보니 운영 과정이 수월한 적이 없다. 매번 운영비가 모자랄 때마다 농사짓는 부모님이 전답을 팔아 도와주셨고, 경주 문화운동을 좋아하는 뜻 있는 후원자들이 독려해 지금의 신라문화원이 설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개원 당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염려했던 분들은 1~2년을 못 버틸 거라 염려도 했다"며 "크고 작은 인연들을 버팀목 삼아 원력을 가지고 일하니 2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단체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경주 대표 문화 단체로 성장한 신라문화원은 향후 지역 문화재를 활용할 관광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심 반경 20km에 많은 사적과 유물이 산재돼 있지만 현재 경쟁력이 없고 있기 때문이다.

진 원장은 "경주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가 담긴 곳이다. 한번 온 관광객들이 다시 경주를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매력적 인프라가 가득하다"며 "특히 관광기념품은 방문 지역을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지역 경제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경주의 대표관광기념품도 한번 점검을 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1993년 3월 18일 신라문화원 현판식. 진병길 원장의 원력 불사로 시작했다.



1999년 시작된 신라불교문화대학1기 강좌.



지난해 처음 열린 조계종 스님 대상 남산 불적답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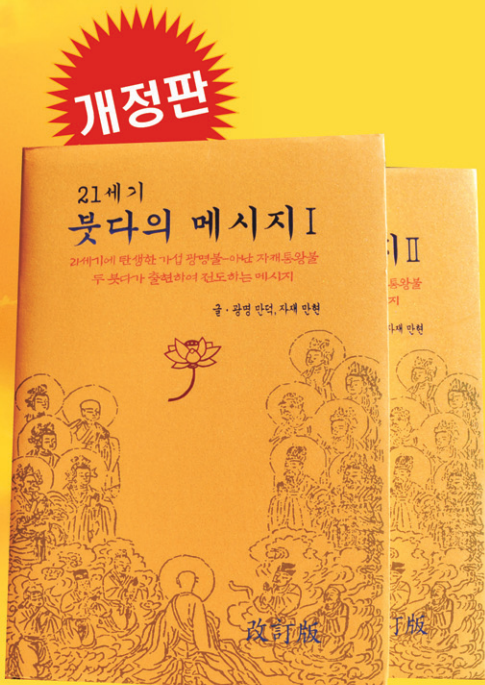


신라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불교성지순례프로그램에서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참가자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